

보도시점 2026. 9. 28.(월) 11:30 배포 2026. 9. 28.(월) 10:00

경제부총리 - 한은 총재, 소통·협력 강화 다짐

- 이형일 부총리, 취임 6일만에 한국은행 방문 및 총재 면담
- 물가·성장·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방안 논의

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.28(월) 오전,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. 이번 방문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대외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기관 간 소통·협력 강화 필요성에 두 경제·통화정책 수장들이 공감함에 따라李 부총리의 취임(9.22일) 6일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.

※ (방문일시/주요내용) '26.9.28(월) 10:00 / 간부 상견례, 부총리-총재 면담 등
(참석) 재경부 차관보, 국제경제관리관, 경제정책국장 / 한은 부총재, 부총재보, 조사국장

李 부총리와 申 총재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·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국 금리 상승,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, 대내적으로도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. 또한 금융·외환·부동산 시장 간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, 거시경제 지표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제 전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, 위험요인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.

이를 위해 李 부총리는 ①물가·성장·금융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조화로운 경제·통화정책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, ②금융·외환·자산시장의 통합 점검 및 조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. 또한, ③보다 긴 호흡에서 원화 국제화, 디지털 금융 등 미래 과제들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. 이에 申 총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물가·금융 안정을 통한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이

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, 이를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.

양측은 이날 방문을 계기로 향후 시장상황점검회의 등 기존 협력체계는 물론,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·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.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창기 (044-215-2750)
		담당자	사무관	이하준 (hajlee@korea.kr)
	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	책임자	팀 장	안세현 (02-759-4461)
		담당자	과 장	이병록 (lbr1225@bok.or.kr)

